

## 시대분별\_Timing IV.

### 거대 자본주의 구조안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공동체 영성 '코이노니아'

#### 1.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부터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 하신다. (마태복음 24:3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 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영성)을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25:31절 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다.

[마태복음 25:31-33]

31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33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분 한다고 말씀하신다(32절).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이다. 왜 성경은 마지막 때를 분명히 언급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성 도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를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 무엇 인지 분명하다.

#### 2. 마지막 때의 심판기준.

[마태복음 25:40, 45-46]

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45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 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6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자'에 대한 보살핌을 말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성이 모호하지 않다. 성도들과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할 영성은 분명하다.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를 돌 보는 일'이다 (주린자, 목마른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자, 병든자, 옥에 갇힌자).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대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분명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보 잘 것 없는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이가 좋은 예이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던 제사장 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한다. 이 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돌보았다. 예수님이 말씀 하신 핵심 은 무엇인가? "누가 강도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를 물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 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 구체적이다.

#### 3. 종교적 영성과의 차이

종교적 영성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동일하다. 차이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 앞 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이웃과 땅에 적용되지 않는 모습,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종교적 신 앙이다. 죽은 신앙은 죽은 사랑을 말한다. 종교적 영성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만 안다 는 것이다.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기해탈, 자기성찰, 자기성장' 등이다. 오로지 신과 자기만이 이 땅에 존재할 뿐이다.

#### 4. 자기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1-2]

- 1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성경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마지막 때를 보라. 말세는 어려운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 말한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이다. 돈과 자신을 사랑하는 고통의 때가 마지막 때이다.

#### 5. 고통의 핵심

무엇이 고통인가? 진짜 고통은 무엇인가? 고통에 대한 답이 없을 때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안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답을 찾는다. 끝이없는 고통의 반복, 영원한 고통이 바로 '지옥'이다.

자본주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든 중심이 '자본, 돈'이 되는 것이다. 현대 인간의 삶의 모든 구조는 '자본, 돈'으로 대표된다. 자본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 안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안에 있는 실제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실제적 고통은 추상적인 고통이 아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어 있는 실제적 고통이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보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속한 영역은 '자본-돈'이 없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많은 고통이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

답을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진짜 '고통'이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이에대한 구분은 '냉정'하다.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 자본가와 비자본가의 구분은 명확하다. 그리고 자본의 소유와 힘은 비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왜 그런가? 이 사회가 '자본'을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경제(삶의 형태, 모양) - 정치(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권력) - 종교 (정치(힘)에게 정당성을 부여) - 돈

#### 6. 자본주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본의 힘을 중심으로 한 서열화 계층화 구조이다.

자본주의 핵심은 '돈'이 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힘의 역학구조가 '자본가'를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있다.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공동체의 개념은, 누가 힘이 있는 자본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 삶의 형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자본'에 있기 때문이다.

#### 7. 거대자본주의

자신의 꿈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주의 구조에 편승해야 한다. 자본을 중심으로 거대조직화를 이룬 집단이 갖는 힘은 막강하다.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대조직의 구조와 가치 철학을 따라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구조 속에 있다. 이런 구조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구조속에 있는 나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구조속에 있는 나는 가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살고있기 때문이다.

#### 8. 마지막 때의 영성

어떻게 이런 구조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볼 수 있겠는가? 이에대한 좋은 예가 '초대교회 공동체'이며, 그들이 추구했던 '공동체 영성-코이노니아'에 있다.

##### (1)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 :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 / 로마라는 거대 구조안에 있었다.

초대교회가 거대 로마라는 구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구조를 편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공동체'로 형성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실제의 결과** : 로마라는 거대구조는 무너졌지만,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한 작은 교회 공동체의 확산과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3)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 약해진 이유** : 64년 네로황제의 기독교 탄압을 중심으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확산 / 312년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 / 313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결국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초대교회가 거대 로마구조 형제를 서로 돌볼 수 있었던 공유와 나눔의 경제는 약해지게 된 것이다.

### 9. 거대자본 구조에서 붙잡아야 할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

[사도행전 2:44-46]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떤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1) **자본의 논리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공유경제가 일어나야 한다.**

교회는 자기를 넘어선 코이노니아의 영성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영성을 붙잡아야 한다. 공동체 영성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2) **컨텐츠 공동체**

거대조직에 편승하지 않는 '창조적 공동체', '콘텐츠 창조'를 통한 다양한 문화가 일어나야 한다. 일원화된 전체주의적 문화가 아니다. 이와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영성의 기반이 교회(몸-지체)의 개념이다. 하나안에 있는 다양함, 다양함 안에 있는 통일성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3)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어디에도 '진리'가 없다. 혼란스럽다. 방향성이 없다. 이런 구조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의 영성들이 필요하다. 부품화와 기계화 되고있는 미래의 인간이 서 있을 곳이 별로없다. 이런 시대속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일어나야 한다.

(4) **구조가 아닌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 플랫폼의 확산**

미래 거대자본주의 구조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일은, 작지만 영향력 있는 창조적 공동체들 사이의 연합이다. 이 연합은 생명 유기체적이고 실제적 연합이며, 이에대한 좋은 예가 초대교회 공동체간의 연합이다. 각 교회는 각자의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 공동체는 각자의 특성대로 생명유기체적 연합을 통해서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플랫폼'의 뿌리가 되었음을 명심하자.

### 10. 영성훈련

(1)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영성의 템포와 리듬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리듬을 유지하는 일.

(2) 영성은 반복으로 이루어지며 반복은 리듬이다. 그리고 그 리듬 위에서 음악이 만들어진다.

(3) 야망, 욕망은 언제나 사랑의 리듬을 깨려고 한다. 공동체 영성의 리듬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영성을 유지하라.